

기독교인의 돈에 대한 가치관과 개인재무관리에의 시사점

김성숙(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 조교수)

I. 서론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면서 늘 '돈 걱정'을 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누리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은 '부자 되기 신드롬'을 양산하면서 부에 대한 맹목성, 더 나아가 신격화에 이르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투자열풍은 사람들에게 '부자'에 대한 환상까지 심어주고 있고 '진정한 부자'에 대한 성찰은 배제되고 있다.

돈에 대한 가치와 태도는 개인의 철학과 종교 등의 배경에 따라 다양하다. 가령 금욕주의, 쾌락주의, 중용주의, 공리주의와 같은 철학적 배경에 따라 돈을 어떻게 축적하고 사용하는 지는 달라질 것이다. 종교는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 재무관리의 실천적 내용은 자신이 가진 종교적 가치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종교관에 따른 재무관리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관심을 가질 만하다.

한편 개인 재무관리의 주요 목적은 개인이 원하는 생활양식을 달성하고 안정적이고 풍족하게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다. 재무관리는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벌 것인가'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로 크게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재무관리의 영역은 첫째, 단기적으로 생활양식 충족을 위한 소득의 획득과 소비 등 예산관리 둘째, 장 단기적으로 가계의 안정과 유지를 위한 위험관리 셋째, 장기적으로 더욱 풍족한 생활의 달성을 위한 투자관리로 정리할 수 있다. 더욱이 금융시장이 분화되고 있는 현대경제 시스템에서는 개인 재무관리영역은 세금관리, 차용관리, 노후자산관리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기독교 분야에서 물질관 혹은 재물관이나 부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언급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성경에는 재물에 관한 직·간접적인 언급이 거의 700 절이나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듯하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생활현장에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부조화를 겪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칭지기'개념을 중심으로 성경에 나타난 재물관과 경제원리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경적인 재물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재물의 소유권 문제를 다루거나 성경에 나타난 부자관, 그리고 십일조와 희년과 같은 헌금제도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즉 모든 개인 재무관리영역에 적합한 성경적 원리를 찾고 규명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고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재무관리영역으로 돈의 소유, 축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적 원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에 나타난 돈과 관련된 가치관을 돈의 소유, 축적, 사용의 측면에서 규명한다. 이는 개인재무관리 목표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돈의 소유, 축적, 사용에 관한 가치관을 토대로 기독교인을 위한 주요 개인 재무관리 실천 내용을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는 개인재무관리의 영역별로 성경적인 가치관과 실천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기독교인들의 개인 재무관리 행동 개선을 위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주요 성경말씀을 인용하였으며 성경적 재물관 및 경제원리에 대한 논문, 신문기사, 기독교 관련 서적 등과 개인 재무관리와 관련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II. 선행연구고찰

1. 성경적 경제원리에 관한 선행연구

성경적인 재물관이나 경제원리를 다루는 선행 연구들이 다수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을 주제별로 구분한다면 크게 성경적 재물관, 성경적 시장 및 경제구조, 성경적 노동관, 성경적 기업관, 성경적 소비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성경적 재물관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재무관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영역이다. 성경적 재물관을 다룬 연구들은 포스터(Foster, 김영호 역, 1989), 켈리(Kelly, 방성규 역, 2002), 힐과 피트(Hills and Pitts, 허령 역, 2004), 서현경(2006), 김정일(2006), 황호찬(1996), 이진창(1991) 등이 있다. 성경적 재물관에 관한 연구들은 물신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있는데 성경에 돈의 죄악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에서 재물의 소유를 옹호하고 있는지 또는 성경은 부요함을 부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연구들 간에 일관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한편 성경적인 노동관을 다룬 연구들도 많지 않아 최근에는 김승욱·유해신(2002), 김재영(1989), 월레스(Wallace, 나용화 역, 1988), 뱅그렌(Wingren, 맹용길 역, 1975) 등이 있다. 그리고 성경적 기업관을 다룬 연구는 안동규 외(1994), 김승욱(2006), 황호찬(2006)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체로 '소명론'의 관점에서 노동을 해석하고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 즉 맡은 직업에 대한 순응을 특히 강조하였다. 성경적인 기업관으로 그리스도인의 사업경영은 세상적인 방법과 달라야 하며 따라서 정직, 상호신뢰, 성실, 사랑, 봉사, 헌신 등의 경영윤리가 주된 성경적 경영원리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기업의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성경적 시장 및 경제구조를 다룬 연구들은 다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존슨(Johnson, 최태영 역, 1990), 홀트만(Haltzman, 김원주 역, 1999), 바이스너(Beisner, 김재영 역, 1993), 김은수(1997), 한동근(1998), 조용훈(1998), 이은선(1999), 최태연(2002), 김동호(2001), 김동윤(2005) 등이 있다. 이 분야에서의 성경적 경제 원리의 내용은 방대한 편인데 소유권과 사유재산권, 성경적 자유과 평등, 청지기의 삶, 성경적 경제체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분석대상은 그리스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로 확장되었고 국내 외환위기 등 경제변동과 그리스도인의 역할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성경적 개인재무관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자산의 한 형태인 토지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강수·한동근(2000), 이재율(2006), 김승욱(2007)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헨리조지 토지공개념의 사상과 관련하여 논쟁에서 학자들 간 부의 소유권과 더불어 그것의 사용권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시각적 차이를 나타냈다.

성경적 소비관도 개인재무관리에 밀접한 관련된 주제인데 대표적인 연구는 카버너(Kavanaugh, 2006), 이재율(2006), 임성빈 외(2008), 김정일(2006)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적 소비관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소비문화, 타락적 소비, 계층

적 과소비 등을 비판하고 보다 검소한 소비생활, 그리고 자족하는 소비생활을 제안하고 있다.

2. 개인 재무관리의 세부영역

재무관리의 내용은 일반인에게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첫째, 재무관리의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재무관리는 소득의 획득과 구매, 소비 등 경제적 기능과 화폐수단의 이용 등 금융적 기능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금전관리, 저축관리, 지출관리, 자산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장단기에 걸친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제활동과 금전자산관리활동의 각 영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으로 인식된다. 둘째로, 개인 재무관리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거시경제적인 변화요인인 인플레이션, 금리변동, 환율변동, 조세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재무관리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변화추이를 면밀하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은 비전문가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셋째로, 재무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 및 재무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제한성 때문이다. 금융자본주의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매우 다양한 금융상품이 시장에 출현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은 여러 가지 기초자산을 혼합하여 설계되는 등 복잡성이 날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자본시장내의 금융회사간 장벽이 사라지고 새로운 투자상품의 설계에 대한 법률적 제약이 거의 제거되었다. 이처럼 투자회사들간의 무한 경쟁상태에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투자상품이 등장할 경우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이에 대한 완전한 정보탐색에 의한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개인재무설계분야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드와이어(Dwyer, 1989)와 가먼(Garman, 1994)과 같은 외국 연구자들은 개인재무설계의 영역을 소득과 지출관리(예산관리), 세금관리, 차용관리, 소득과 자산의 보호, 소득과 자산의 증대, 노후 자산관리로 나누고 있다. 신창용(1994)은 재무관리의 영역을 세금관리, 퇴직자금관리, 투자관리, 예산관리, 상속계획, 특별자금준비, 보험관리의 일곱 항목으로 나누고 있다. 김성민 외(2003)는 예산관리, 세금관리, 지출관리, 신용관리, 보험관리, 투자관리, 은퇴설계의 일곱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윤정혜 등(2001)의 연구에 따르면 재무설계 또는 재무상담과 관련된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개인재무관리의 영역을 가계의 재무상태 평가,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관리과정 및 자산증식·차용·은퇴준비 등의 분야별 재무관리행동, 재무문제 진단 및 대처행동에 관한 주제들로 분류하였다.

<표 1> 재무관리영역에 따른 선행연구들의 주요 주제

| 선행연구분야 | | |
|----------------------|--|----------------------------------|
| 개인재무 관리영역(Garman) | 개인 재무관리 영역 | 성경적 경제원리 |
| 재무목표 | 재무목표와 계획 | 재물관 및 소유관 |
| 소득과 지출관리 | 직업정보탐색, 합리적인 소비생활전략, 예산 설정 | 직업관(노동관), 현대 소비문화 비판 및 타락적 소비 |
| 세금관리 | 소득세(소득, 사업, 금융소득 및 양도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절감방법 | - |

| | | |
|------------|--|---------------------------|
| 차용관리 | 부채적정성, 신용관리, 채무해결 | 빚의 허용 및 상환 |
| 소득과 자산의 보호 | 보험의 선택과 가입, 은퇴준비와 상속 | - |
| 소득과 자산의 증대 | 저축방법, 이자, 투자 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부동산 등) | 투자와 이윤추구의 허용여부, 부의 축적의 목적 |

III. 성경적 '돈의 가치관'

1. '돈의 소유'에 관한 성경적 관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적인 '재물관'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과 신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본 절에서는 개인의 재무관리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인 성경적인 재무목표의 설정은 재무관련 가치관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성경에서 재물과 부자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관과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성경적인 재물관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주제는 하나님께서 재물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셨는가에 대한 것인 듯하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어느 정도 공통된 결론은 하나님은 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우선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은 '사적 소유'의 인정을 가정한 구절이 많다. 창세기 24장35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 은금, 노비, 약대, 나귀 등 생계를 위해 필요한 물질을 개인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저번에 소유를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창세기 26장 12-13절을 보면 여호와가 이삭을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게 했다고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야곱 역시 같은 축복을 받았다(창 32:5).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는 천하 열 왕보다 크다고(왕상 10:23) 역사서에는 기록하고 있다.

초대교부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예수가 '부자 세리들인 삭개오와 마태와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재물을 포기하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 '가진 것이 없으면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재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소유되었기 때문에 "소유"라고 불린다.'라고 하였다(Kelly, 방성규역, 2003:280).

1) 축복의 통로로서의 재물

성경은 재물 또는 부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가? 성경에는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많이 등장한다. 많은 성경 구절에서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점이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의미하는데 먼저 재물 혹은 부유함은 복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경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곁하여 주지 아니하시고(잠 10:22) 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며(잠 21:20).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잠 22:4)이라고 하였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의 한 종류로서 재물과 부유함을 인정하는 말씀이다. 솔로몬시대에는 부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복의 상징이며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성경은 재물이나 부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잠언 3장

16-17절 말씀에서는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라고 적혀있다. 또 잠언 8장 18절에도 "부귀가 내(하나님)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라고 하였다. 칼빈도 이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사람의 소유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만물의 최고의 주인이신 분이 분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이은선,1999:151). 하나님께서 부유함의 원천이시라는 점은 특별히 중요한데 이는 부의 획득이 개인의 노력에 기인하지 않으며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귀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시고 상으로 분배해 주실 만큼 특별히 좋은 것을 암시한다.

2) 돈의 구속의 경계

반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범하기 쉬운 재정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¹⁾은 재물에 대한 사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재물은 NIV에서는 화폐(money)로, NKJV에서는 맘몬(mammon)으로 번역하고 있다. 성경에서 재물 또는 부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서술한 부분도 많다. 우선 디모테 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라고 경고할 만큼 돈에 대한 사랑을 강력히 배척하고 있다. 또 아모스는 부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살찐 암소로 표현하고 있으며(암 4:1), 복음서에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어려움을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막 10:25). 또 누가는 예수께서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를 대비하면서 각각 복과 화를 선포하심을 전하고 있다(눅 6: 20-25).

힐과 피트(Hill and Pitts, 허 령 역,2004: 51-64)는 이 맘몬의 영향력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즉 맘몬의 영향력은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 잘못된 돈 관리, 계속적인 재정 결핍, 돈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사고방식, 충동적 구매, 인색함, 욕심, 불만족, 빛의 멍에, 열째, 돈에 대한 과장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과대평가이다. 부유함으로 인한 구속은 읍의 고백 속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는 31장에서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24-25절)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28절). 이에 따르면 부유함으로 인한 구속 증상은 금(재물)에 대한 소망, 의뢰함, 기쁨으로 나타난다.

2. '부의 축적'에 관한 성경적 관점

1) 합당한 부와 부자

'부자'에 대하여 성경에 부정적인 언급들이 많은 것은 널리 인용되는 사실이다. 우선,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통곡하라...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값이 소리 지르며 ...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로 부한 자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부'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또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므로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서 고민을 받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것(25절)을 나타내고 있다.

1) 한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하느니라.

이 비유를 문자적으로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만으로 해석하기 쉬우나 여기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임(27-31) 명시하고 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부자나 가난한 자 여부가 아니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향유한 자의 회개이다.

이러한 모습은 누가복음 12장 6절 이하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유사하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할 일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은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인생의 중년기이후에는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물질에의 전적인 의존 증상과 다를 바가 없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있어 부 축적의 목적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고(20절) 꾸짖으셨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부를 축적하되 재물에 대한 소망, 의뢰함, 기쁨을 배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복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마 7:19-20)라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2) 성경적인 저축과 투자행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투자를 통한 상업적 이익을 어느 정도 추구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성경이 쓰였던 시대의 경제적 환경은 금융적 투자는 물론이고 상업적 투자 행위가 보편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투자행위'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구약시대에 솔로몬은 "지혜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잠 21:20)고 하였다. 저축하는 행위가 지혜롭다는 말씀인데 저축은 왜 지혜로운 것인가? 그 근거로 바이스너(Beisner, 김재영 역, 1993: 174-75)는 비상한 때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한 것(창세기 41장과 47장)과 미래 지향성(잠 21:17)을 제시하고 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예비하고 또 자기 후손들의 미래를 대비하여 그들을 위하여 물려줄 기업을 성실하게 건설한다(잠 13:22). 성경은 미래 준비를 위한 '저축행위'는 지혜로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초대 교부들의 경제사상은 '부의 축적'에 대하여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는 재물은 이웃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려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기적인 목적으로 재물을 소유하는 태도를 거부하였다. 마찬가지로 초대교부들인 카파도키아의 대 바실리우스,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콘스탄티노플의 요한 크리소스톰,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소유권에 대하여는 이웃을 위해 사용되는 소유권만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Avilla, 김유준 역, 2008).

종교개혁가들인 루터, 멜랑히톤, 그리고 쾰링거리는 많은 재물의 소유가 과도한 이자의 취득과 상거래의 독점화와 연결된다고 보았고 이런 소유행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았다(이혁배, 2006). 루터가 농업은 근본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나 상업은 유통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금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칼빈은 상업이 노동의 분업화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직업이라고 보았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하겠다. 경건한 자의 생활은 정확하게 상업 활동과 비유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교환하고 교역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상업을 옹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자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이자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성경에서 이자수취 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취급이 달랐던 점에서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당시의 일시적인 시민법이었다. 그러므로 성경자체는 이자 수취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했다(이은선, 1999).

홀트만(Haltzman, 김원주 역, 1999: 86-97)은 이처럼 성경기자들이 가졌던, 그리고 초대 교부들이 가졌던 재산권에 대한 부정적인 접근은 경제체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해석했다. 즉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사회와 20세기 자본주의자들의 경제성장과 번영, 생산자본으로서의 부의 형태에 대해서는 사고방식이 전혀 달랐다. 성경기자들이 살았던 생존을 유지하는 정도의 생활이 보편적이었던 세계에서는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굶주리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자신의 미래만을 위해 축적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그는 자본주의시대에서는 부가 생산자본으로 이해되며 미래소비의 대상으로만 이해되지 않는데 비해 성경 기자들은 부를 재화의 소비대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2> 고대와 현대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의 사용에 대한 성경의 접근방식

| 고대세계 | 현대세계 | 성경의 접근방식 |
|-----------------|-----------------|-------------------|
| 소비 | 소비 | 성경에서 가르치는 소박한 생활 |
| 구제 | 구제 | 신자에게 필요함 |
| 미래 소비를 위해 부를 축적 | 미래 소비를 위해 부를 축적 | 성경에서 비난함 |
| | 생산자본 |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음 |

출처 : 홀트만(Haltzman, 김원주 역, 1999: 96).

성경은 투자로부터 산출되는 '이자'의 성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다루는 부분으로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마 25:14-30)가 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적 역할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동시에 그 청지기 역할이 생산적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서는 주인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모두 맡은 바 임무에서 투입보다 많은 산출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부가적인 산출을 내지 않는 종에게는 가혹한 꾸중과 대가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능력의 투입은 투입이상의 산출이 이루어졌을 때 충성된 역할을 다한 것이다. 이 비유들은 생산성의 중요성, 그리고 투자의 수익성을 저변에 인정하고 있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공의를 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여된 생산과 투자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는 투자행위 자체 보다는 창출된 이익의 사용에 있다.

3. '돈의 사용'에 관한 성경적 관점

성경적인 돈의 사용에 대한 주제는 기독교와 경제라는 주제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진 내용이다. 성경에서 수입의 용도는 세 가지이다(Haltzman, 김원주 역, 1997: 86). 첫째는 모든 사람이 수입의 일부를 현재 필요한 일에 쓰는 것이다. 둘째는 수입의 일부는 십일조와 헌금에 쓰였다. 셋째는 사람들은 장차 쓸 일을 위해 수입의 일부를 남겨두었다. 이 가운데 성경에서는 부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느냐에 대하여 일관되게 필요한 만큼 사용할 것,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을 언급하고 있다.

1) '자신'을 위한 돈의 사용

지난 199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이 소비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했듯이²⁾ 현대의 소비문화는 그리스도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현대의 소비문화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적 전통과 동떨어져서 신앙의 요소 중 극히 일부분만을 신앙의 내용으로 붙잡으면서 실제로는 수동적인 소비자로서 살고 기능하도록 길들여지게 되는 문제이다(Miller, 2004: 9). 또 송재룡(2008: 66-85)은 한국 소비문화의 부정성, 예컨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비판받는 때 지어 물리고 쏘리는 소비자의 모습, 지나치게 과시적인 물질소유지향성과 비합리성 등의 근저에는 유교에 뿌리를 둔 '가족주의'에 있음을 비판한다.³⁾

소비욕구이론이나 소비자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이 어떤 재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간주되었다⁴⁾. 또 사람들은 돈이라는 것은 늘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돈이 부족한 상태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늘 돈을 축적하려고 한다고 이해하여왔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돈을 쫓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 자체나 돈을 소유한 상태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먹고 입을 것이 부족해서 그것들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사랑하거나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상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비하는 것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소비행태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 전에 자신이 돈 쓰는 것을 사랑하는지 혹은 소비로 인해 드러나는 본인의 모습을 지나치게 즐기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돈에 대한 사랑, 소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묘사되는 부자들의 소비 양상은 낮은 모습이 전혀 아니다. 구약시대의 부자들이 소비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은 신랄하기까지 하다. 선지자 이사야는 당시 불법적으로 토지를 사들여 부를 축적한 부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아침부터 밤이 깊도록 술에 취하거나'(사 5:11), '연회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포도주를 즐기면서 여호와와 그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관심치 않는다.'(사 5:12)고 묘사하고 있다. 선지자 아모스도 지배계급의 소비행태를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암 6:4-6)로 묘사하고 있다. 신약성경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거나 '(눅 12:10),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눅 16:19)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묘사된 부자들의 소비행태는 타락적 소비를

-
- 2) "우리 시대의 역사는 비극적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시각이 이전에 마르크스주의, 나치즘, 과시즘과 같은 이데올로기의 결과를 가졌다. 또한 인종적 우월성, 민족주의, 민족적 배타주의 같은 신화를 가졌다.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덜 해로운 것도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물질주의적 소비주의의 결과일 것이다. 인간적 열만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만족의 고양은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된다. 이런 입장에서 타인들에 대한 부정적 결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어디에서든 인간 존엄에 대한 어떤 모욕도 있어서는 안 된다"(Kavanaugh, 2006: 35, 재인용).
 - 3) 그는 유럽 기독교 국가에서 문화로 뿌리 내린 사랑과 정의 및 책임 또는 죄와 벌이라는 강력한 가치 평가적 집합의식이 공동체적 집합의식으로 전승된 기독교문화의식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소비문화에 뿌리내리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4) 소비욕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에 근거를 둔다. 인간의 욕구는 물리적인 욕망(식욕이나 수면욕 등)이나 안전의 결핍, 소속감과 사랑, 타인의 인정,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에 기초한다. 최근 소비사회에서는 이러한 욕구들이 불충족이나 부족 때문 보다는 타인에게 비추어진 자아에 대한 의미 때문에 더 소비된다고 볼 수 있다.

의미한다. 타락적 소비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여부이다. 하나님을 떠나 소비를 통한 쾌락을 사랑하고 소비의 결과로 나타난 과시와 권력을 사랑하게 되어 우상화하게 된다면 타락적 소비라고 볼 수 있다.

2) '타인'을 위한 돈의 사용

한편 성경은 돈의 사용에 있어서 '나눠 주기'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구약시대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부의 나눔을 제도화하였다. 사이더(Sider, 한화룡 역, 1998: 105-115)는 성경적인 경제적 나눔에 대하여 희년, 안식년, 십일조와 이삭줍기에 대한 율법을 중요한 제도로 설명하고 있다. 희년제도는 50년마다 땅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줘 모든 가족이 공동체의 존귀한 일원으로서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레 25:10-24). 사이더(Sider, 한화룡 역, 1998)는 이러한 희년제도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자에 똑같이 근본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소유주이시며 각 사람이 자신의 생활을 꾸려 나갈 수단을 가질 권리는 구매자의 재산권이나 전적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제보다 우월하다. 동시에 희년은 청기지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각 가정의 관리하는 사유 재산의 중요성 또한 분명하게 확인하므로 국가가 모든 땅을 소유하는 사회주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1997: 110-111).

신명기 15장은 안식년에 대한 이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7년마다 돌아가면서 특정한 땅의 생산을 쉬게 하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생산된 산출물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안식년 제도를 하는 이유는 '언제든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기'(신 15:11) 때문이었고 명하여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느니라"(신 15:11)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또 이스라엘의 십일조와 이삭줍기 제도는 일시적으로 생산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규정의 일부이다(Sider, 한화룡 역, 1998: 115). 성경에서 십일조에 대한 규정들(신 14:22-29, 레 27:30-32, 신 26:12-15, 민 18:21-32)은 '매년 땅의 십분의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레 27:30, 14:22), 그리고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신 14:28) 다 내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십일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십일조는 여호와와 그의 것(말 3:8), 혹은 여호와와 그의 성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레 27:32). 둘째, 십일조의 용도는 사회공동체의 구제로 특히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신 14:29) 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십일조는 개인적 차원에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기를 위한 것'이다(말 3:10-11). 넷째, 십일조는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하는 데 목적을 가진다(신 14:23).

한편 이스라엘의 이삭줍기 제도가 잘 나타난 성경은 룻기 2장이다. 가난한 과부 룻은 동전 한 푼 없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추수 때에 들에 나가 이삭 줍는 사람들이 떨어뜨린 낱알들을 모아서 생계를 이을 수 있었다. 이삭줍기 제도는 사회의 극빈층이나 사회적 기반을 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없었던 이민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솔로몬은 가난한 자에 대한 선행의 당위성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잠 19:17)를 통해 명백히 알리고 있다.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나눔의 제도화보다는 나눔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실천을 독려하는 많은 구절들이 등장한다. 신약에 나타난 나눔과 관련된 말씀들을 정리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나눔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히 3:16, 잠 19:17). 둘째,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보상으로 복을 받게 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마 15:34-36, 눅 6:3). 셋째, 나눔의 실천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에 의해서 완성된다(약 2: 15-16, 막 10:21).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딤후 6:18)가 되라고 한다. 삭개오는 천국으로 가기위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눅 19:8)라고 고백하고 있다. 넷째, 성경은 나눔의 목적을 공동체 안에서 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는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⁵⁾. 다섯째, 나눔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의무감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마 23:23, 고후 9:13)

이처럼 구약 농경시대에 적용되었던 제도들은 신약시대에 적용되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으며 이를 현대경제체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Sider, 한화룡 역, 1998: 117). 이들의 말씀의 근거에 있는 성경적 원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하나님이 자선이 아니라 정의를 원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 사이에 빈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IV. 기독교인의 개인재무관리 실천 내용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한 구속' 상태에 놓이기 쉽다. 그리스도인 스스로는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행동은 재물을 탐하고 의존하는 세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지 돌아봐야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권유하시는 재무관리 가치와 지침을 생활에 엄격히 적용한다면 지금까지의 세상적인 생활의 상당 부분의 희생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적용할 가장 중요한 도전가치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돈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할 것이다. 이에 앞에서 살펴본 성경적 '돈'에 대한 가치관을 토대로 몇 가지 기독교인의 개인재무관리 실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청지기의 역할과 자족하는 삶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소유권⁶⁾과 '재물의 공급하심'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소유만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마찬가지로 선언하고 계시다. 마태복음 6장 31-32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의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지 못함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5) '평균계 함이란 공동체안의 평등성을 지향하지만 문자 그대로 똑같아짐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공동체안의 구성원들의 상호구제를 통한 보완적인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동체 안의 나눔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상호적인 주고받음을 지향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나눠 주는 행위는 일방적으로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에게로만 부의 이전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대에서 이루어지는 나눠 주는 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를 걸친 장기적인 상호보완적 행위를 주목하신 것이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는 '후에'라는 부분이 이것을 의미한다.

6) 하나님은 욥에게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욥 41:11), 모세에게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출 19:5), 시편기자에게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여호와와 의 것이로다."(시 24:1), 율법에 "토지는 다 내 것이로다."(레 25:23)라고 말씀하셨다.

소유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수용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청지기' 역할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달란트)을 사용하고 재물을 관리하며 나중에 이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함에 대한 구복이나 경제적인 위협의 극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처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순간에서 우리는 재물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솔로몬은 재물에 대한 간구함에 있어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잠 30:8). 그는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여호와가 누구냐'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가난하게 되면 '생계를 위해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칼빈도 어거스틴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동일하게 생명의 유업에 참여한다고 말했으며 기독교인들은 가난을 지나치게 미화해서도 안 되고 부가 천국에 가는 장애물이 되게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이은선, 1999: 150).

요약하면 기독교인은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재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스스로 무조건적인 부유함의 추구를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기독교인은 재물 혹은 돈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돈의 구속은 지나친 가난이나 지나친 부유함에 기인한다. 지나친 가난은 부채를 지게 되는데 빚을 진 자는 결국 채주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잠 22:7)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어렵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재물에 대한 적합한 목표로 '자족'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디모데 전서 6장 7-8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할 줄로 알 것이니라"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자족의 기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문자적으로 적혀있다.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자족의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최저 생활수준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울의 생존 당시는 굶주리는 가난한 이들이 주변에 항상 있었을 정도로 생존을 유지하는 정도의 경제수준이었다. 그러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생활수준은 생계수준을 넘어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족된 삶'으로의 훈련의 가치를 언급하고 있다. 빌립보서 4장 12-13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다. 자족의 상태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곁하여 주지 아니한(잠 10:22) 상태가 된다. 이미 기독교계에서 '자족'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음(Burkett, 2000; Macarthur, 김애정 역, 2007)은 자족의 태도가 개인의 재무관리에 있어서 채택될만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성경적인 저축·투자원칙의 정립-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현대인들에게 올해의 소원을 질문하면 종종 로또 당첨, 투자한 주식이나 보유 부동산의 폭등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투자 붐은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지식이 부족하거나 무능력한 사람, 처세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투자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더욱 혼란스러워 졌다.

부동산 및 증권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과 기독교 정신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 2004: 62-63)에 따르면 응답자의 61.8%는 부동산 및 증권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기독교 정신과는 무관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응답은 33.8%, 기독교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응답은 4.4%에 불과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이 61.8%나 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 부의 축적과 종교적 신앙을 밀접하게 연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성경말씀들은 부자에 대하여 그리고 부의 축적과 이익의 산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지 않다.

성경적인 저축·투자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축적된 부의 사용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공의로운 방식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성경은 또한 미래의 소비만을 위한 과도한 부의 축적은 비난하는 동시에 충성된 자의 이익 창출의 노력은 긍정하고 있다. 성실한 노력과 생산성을 수반한 합목적적인 '부의 축적' 자체는 권장되어야 할 기독교인의 역할 일 것이다.

성경에서의 여러 말씀들에 나타난 행동원칙들은 투자행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투자원칙의 첫째는 투자자의 결정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투자의 결정은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책임한 투자는 증권시장의 온갖 루머나 권유들, 상업적인 광고들, 그리고 본인에게 맞지 않는 투자방침을 무조건적으로 따른다. 잠언 14장 15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라고 하였다. 투자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을 삼가고 증권시장의 온갖 말을 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투자수익률이나 투자위험률 등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탐색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기초적인 행위라고 말한다. 누가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는가"(눅 14:28)라고 하였다.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비용과 수익을 먼저 계산하는 것은 투자의 기본이다. 투자비용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본의 이자와 투자관련 각종 수수료, 그리고 투자결정에 투여된 시간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투자하는 기업 및 그 산업 전반의 전망, 시장의 경기변동과 전망 등은 투자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투자비용과 투자수익률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충분한 정보탐색과 이해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투자에 있어서 성급함을 배제하고 인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경은 부를 하늘로 날아가 버리기 쉬운 독수리(잠 23:4-5)에 비유할 정도로 쉽게 사라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성급하게 부를 쫓다가는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속칭 '묻지마' 투자를 하지 말아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물은 순식간에 올 수도 있지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솔로몬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잠 28:20)라고 지적하고 있다. 본 말씀은 충성된 자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를 대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속성 즉 충성되지 못함, 성실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도인

들은 투자를 할 때 과원지기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눅 13:6-9)를 대하듯이 장기적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베드로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을 거론하였다(벧후 1:5-6). 마찬가지로 투자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다운은 성급함이 아니라 절제와 인내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넷째, 성경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겸손함과 소신 있는 모습이다. 시편기자는 인생에서 실족하거나 미끄러질 뻔한 원인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질투 때문이라고(시 73:2-3) 고백한다. 많은 투자자가 인내하지 못하고 일확천금을 기대하면서 성급해지는 이유는 극소수의 투자자들이 달성한 놀라운 수익률에 대한 부러움, 질투 때문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성경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된다'(잠 24:3-4)고 충고한다. 투자의 성공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따르고 자신만의 목표에 충실할 때 큰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아무 일에도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성경적인 투자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비생활을 점검·수정해야 한다. 성경에서 슬로몬은 벌어들인 것을 다 써 버리는 것은 미련한 자라고 하였다. 벌어들이는 것을 다 써 버리는 것은 과소비이며 또 현재 지향적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저축과 투자에 실패하는 근본 원인이 바로 현재지향적인 소비에 있다.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소비를 점검해야 한다. 현재의 자신의 소비지출 상태나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계부의 기록을 바탕으로 과도한 소비를 했는지, 불필요한 소비항목이 무엇인지, 예산이 정확히 수립되었는지, 저축의 비중이 적절한지, 절약한다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과 품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벌어들인 것을 다 소비하면서 투자를 하려면 빚을 내어 투자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대출을 통한 투자는 위험도가 정상적인 투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할 투자방법이다.

3. 소박하고 나누는 소비생활

현대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하는 소비문화는 어떠한가? 이재율(2000: 59-65)은 그리스도인의 타락적 소비문화와 부정적인 소비문화를 개선할 대안으로 '소박한 삶'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소비의 증가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소비가 주는 쾌락에 탐닉하면 그것을 이상화하기 쉽고 나아가 부에 대한 강한 탐욕이 생긴다. 이것은 영혼을 엄청난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많은 사람들이 아직 빈곤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포스터(Foster, 김영호 역, 1989: 85-87)는 예수께서 돈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들을 '단순성'으로 집약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단순성은 분열되지 않은 마음, 환희, 신뢰와 만족,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움, 단정함과 절제, 감사히 받음, 돈의 선용, 활용성, 관대함과 기꺼이 줌을 주요 특성으로 보았다. 그리고 박성관(임성빈외, 2009: 163-171)은 이러한 현대 소비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교회공동체 문화를 통해서 극복되기 위해 소비문화와 소비자사이의 전략으로 '자족'을, 문화신학과 종교상품화 사이의 전략은 '영성'을, 공동체와 자유 사이의 전략은 '단순성', 도덕결정자로서 교회공동체의 전략은 '정의'를 제안하였다.

한편 성경에서 최저 소비생활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신약성경에서 나타나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잔치에 기꺼이 참여하셨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풍성한 먹

거리가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생계유지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먹고 입을 것의 향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비이다. 또한 거룩한 산제사인 그리스도인 각자의 건강한 생활 유지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차지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생활 유지를 위한 소비는 가장 기초적인 소비 요소이다.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한 물질의 풍요는 우리로 하여금 더 질이 높은 재화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였고 풍성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현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균적인 물질적 풍요일지라도 그 소비의 모습은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의 관점에서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수준일 것이다.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의 기준은 물질적 소비의 절대적 기준 보다는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기준에 근거를 두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한편 그리스도인이 속하는 사회의 가치기준 및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의 생활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면서 교회 공동체에는 무리하게 소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소비 가운데 그 가족을 돌보는 소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실현하는 행위로서 충실히 이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말씀에서 '자기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믿음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소비행위로서의 타락적 소비를 엄하게 경계하는 반면 그리스도인의 자신과 가족을 돌봄을 위한 소비행위는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실천임을 나타내고 있다.

나눔을 실천하는 태도에 대하여 성경은 기쁨(고후 8:11) 희생(고후 8:2-3), 정성(고후 8:4), 지체 없음(고후 8:11), 자발성(출 25:2), 은밀함(마 6:2-4), 정직(행 5:4)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포스터(Foster, 김영호 역, 1989: 87-98)는 '주기' 위한 일곱 가지 지침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관대하고도 기꺼이 적절하게 주라. 십일조는 구약에서의 규칙이며 신약에서는 그 이상으로 나누었던 예들(막 12:41-44, 행 4:36-37)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즐겁고 관대한 심정으로 합리적인 기부와 모험적인 기부 사이에서 창조적인 긴장을 유지하라. 셋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유명도가 낮은 개인이나 단체를 찾아 주도적 하라. 넷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구하지 말고 주라. 다섯째, 너그럽고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들의 돈만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라. 여섯째, 너그럽고 기꺼운 마음으로 적절하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울 사람을 구하라. 일곱째, 너그럽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관심을 주는 사려 깊은 유언서를 작성해 두라.

V. 결론

본 연구는 개인 재무관리의 영역별로 성경적 가치관과 실천 내용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개인 재무관리 영역은 돈의 소유, 축적, 사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성경말씀과 관련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과 관련하여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성경적인 '돈의 소유'에 대한 가치는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긍정성과 재물의 사랑은 일만 악의 뿌리로 경계의 대상이라는 부정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이는 모든 재물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토대로 돈에서의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둘째, 성경은 여러 가지 부자와 관련된 비유를 통하여 부자 자체에 대하여는 부정하지 않

고 오히려 지혜롭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어리석게 자신만을 위해 축적한 부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투자에 대한 이중적 태도로 연결되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난 투자활동 자체는 옹호하고 있는 반면 주의의 가난을 돌보지 않는 이익의 추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셋째,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소비문화의 문제는 신앙적 전통과 소비생활의 분리로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한 것이다. 성경적인 소비관은 타락한 소비는 배격하는 동시에 자신과 가족의 돌봄을 위한 소비행위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또 성경적인 돈의 사용은 궁극적으로 '나눔'에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구약시대의 나눔의 제도와 신약시대의 나눔의 정신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토대로 이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 재무관리 실천 내용으로 첫째, 기독교인의 청기지적 역할과 자족하는 삶을 제안하였다. 지금같이 금전적,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돈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족하는 삶'의 가치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둘째, 성경적 부자 및 투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기독교인의 저축·투자 실천내용은 부축적의 목적을 분명히 할 것, 공의로운 방식으로 투자할 것, 기독교인의 행동원리에 근거한 투자원칙을 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성경적 투자목적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기 위한 것과는 선한 일과 가난 구제에 두어야 한다.

셋째, 기독교인들은 자본주의 상흔에 길들여진 수동적인 소비자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더 많은 것을 향유하기 위해 빚을 지고 가는 재무관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주변에 늘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아 나눔을 실천하는 개인의 소비생활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대 그리스도인을 위한 소비지출의 실천 내용으로 첫째, 타락한 소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본인의 소비행동을 점검하고 단순한 소비와 소박한 소비에의 실천, 둘째, 나눔의 실천에서는 자신만의 현금원칙의 정립과 나눔의 성경적 태도를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 김경자(2001), "인터넷 재무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양식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207-220.
- 김경자·홍정하(2002), "대학생들의 개인재무관리 교육 내용개발을 위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생화학연구논집』, 22(1), 5-18.
- 김동윤(2005), 『부자를 꿈꾸는 청지기』, 서울: 생명의 말씀사 .
- 김동호(2001), 『깨끗한 부자』, 서울: 규장
- 김성민 외(2003), 『생활재무관리』, 서울: 경문사.
- 김승욱·유혜신 (2002), "노동관의 제 유형과 성경적 노동관", 『신앙과 학문』, 7(1), 9-37.
- 김승욱(2006), "경제학적 기업관의 변천과 성경적 기업관", 『신앙과 학문』, 7(1), 87-125.
- 김승욱(2007),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신앙과 학문』, 2(3), 83-124.
- 김은수(1997), "John Calvin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따른 사회경제 윤리와 사상에 대한 소고," 『역사신학논총』 13집, 8-49.
- 김재영 편저(1989), 『직업과 소명』, 서울: IVP.
- 김정일(2006),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대한 성경적 비전: 특집논문 ; 맘몬이즘(mammonism)이

-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과 극복 방안연구," 『통합연구』, 19(1), 91-118.
- 백은영·배미경·이승신 (2004), "재무교육이 미국 대학생들의 주관적 재정관리 행동문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8), 219-233.
- 서인주(2003),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현경(2006),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대한 성경적 비전 : 특집논문 ; 현대 페티시즘(fetishism:물신(物神)주의)의 기독교적 고찰," 『통합연구』, 19(1), 67-89.
- 윤정혜·김경자·성영애·손상희·양세정·이희숙·최현자 (2001), "소비자재무설계·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방향," 『소비자학연구』, 12(3), 89-108.
- 성영애·최현자 (2000), "가계의 부채관리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가계 부채문제의 규명,"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93-207.
- 송재룡(2008), "한국 소비문화의 밈(meme)과 기독교문화 : 문화-언어적 관점에서," 『소비문화시대의 기독교』, 예영커뮤니케이션, 57-94.
- 신창용(1994), 『증견기업가의 개인재무관리』, 서울:홍익미디어.
- 안동규·주우진·한기수·송지환·한정화·황호찬 (1994), 『한국 경영자의 윤리의식 조사 및 윤리적 경영 풍토 조성을 위한 연구』.
- 이건창(1991),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연구 / 특집 : 가난과 부요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 가난과 그리스도인의 경제원리에 관한 소고," 『통합연구』, 14(2), 85-105.
- 이은선(1999), "칼빈과 청교도의 경제윤리," 『개혁신학과 경제윤리』, 제6회 정기학술 심포지엄 발표논문, 137-164.
- 이재율(2000), "기독교 소비윤리에 관한 소고," 『신앙과 학문』, 5(1), 51-73.
- _____(2006),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는 성경적인가?," 『신앙과 학문』, 11(2), 171-196.
- 이혁배(2006), "분배문제에 대한 요릭 슈피겔(Yorick spiegel)의 경제 윤리적 성찰," 『기독교철학』, 제2호, 77-108.
- 임성빈외 7명 (2008), 『소비문화시대의 기독교』, 예영커뮤니케이션.
- 전강수·한동근 (2000), "한국의 토지문제와 경제위기," 『경제학연구』, 48(2), 125-153.
- 정운영·황덕순 (2006), "대학생을 위한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생활과학회지』, 15(6), 999-1014.
- 조용훈(1998), "신앙과 경제윤리," 『통합연구』, 11(1·2), 통권 33호, 통합연구학회.
- 최태연(2002), "경제원리에 대한 기독교 철학적 논의," 『신앙과 학문』, 7(2), 154-179.
- 최현자·성영애 (2001), "가계의 부채관리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235-251.
- 한동근(1998a), "청지기 윤리의 위기와 경제위기," 『통합연구』, 11(3·4), 65-86.
- _____(1998b), "경제 : 토지문제와 경제개혁의 방향," 『신앙과 학문』, 3(10), 53-74.
-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 (2004), 『한국 기독교인의 정치·사회 의식조사』, 한올아카데미.
- 황호찬(1996), 『돈, 그 끝없는 유혹』, 서울: IVP.
- _____(2006), "기업영성 : 함축적 의미와 적용," 『신앙과 학문』, 11(1), 199-220.
- 홍향숙(1997)"기혼여성의 재무관리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53-69.
- Avila Charles(2004), Ownership: Early Christians Teaching, 김유준 역 (2008), 『초대교부들의 경제사상, 소유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Baek, E. (2001), "Financial concerns and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Proceedings

-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6-25.
- Beisner, E. Calvin(1988), Prosperity and Poverty, 김재영 역(1993), 『경제 정의 실천을 위한 바른 경제 윤리』, 서울: 도서출판 나침반사.
- Burkett, Larry(2000), How to Manage Your Money, Moody Publishers, U. S.
- Dwyer, D. P. (1989), The Seven Stages of Financial Planing : A Case Study Approach to Financial Planing, Longman financial services publishing, a division of Longman financial services institute, Inc.
- Foster, Ronald, J. (1985), Money, Sex, Power, 김영호 역(1989), 『돈, 섹스, 권력』, 서울: 두란노.
- Garman, E. T. and Forgue R. E. (1994), Personal Finance, 4th ed., Boston, MA : Houghton Mifflin Company.
- Halteman, James (1997), The Clashing Worlds of Economics and Faith, 김원주 역 (1999), 『신앙과 경제』, 서울: 아가페.
- Hill, Craig and Earl Pitts(2001), God's Biblical Principles of Finance, 허 령 역 (2004),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 Johnson, Luke T. (1986), Sharing Possessions, 최태영 역(1990), 『소유와 분배』, 서울: 도서출판 대장간.
- Kavanaugh, John F. (2006), Following Christ in a Consumer Society, NY, Maryknoll Orbis Books.
- Kelly Joseph F. (1997), The World of the Early Christians, 방성규 역 (2002), 『초대 기독교인들의 세계』, 도서출판 이레서원.
- Lyons, A. C. & J. L. Hunt (2003), "The Credit Practices and Financial education needs of Community College Stud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4(2), 63-74.
- Macarthur, John(2006), Anxious for Nothing-God's Cure for the Cares of Your Soul, 김애정 역(2007), 『자족 연습』, 도서출판 토기장이
- Miller, Vincent, J. (2004), Consuming Religion : Christian faith and Practice in a Consumer Culture, New York, London: Continuum.
- Muske G. and Winter M (2004),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Education: An Alternative Paradigm,"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5(2), 79-88.
- Sider Ronald, J. (1997), Rich Christians in and Age of Hunger, 한화룡 역 (1998),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IVP.
- Wallace, Ronald S. (1957),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s, 나용화 역 (1988),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기독교문서선교회
- Wingren, Gustaf (1957), Luther on Vocation, 맹용길 역 (1975), 『루터의 소명론』, 킨콜디사.